■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자유케 되리라　성경: 요한복음 8장 32절

Tag:

32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8:32)

나는 어려서부터 책을 좋아하였다. 당시에 딱히 소일거리가 없었다.

동네 친구들과 노는 것도 이내 심드렁 해졌다. 어린 마음이지만, 동네 애들이 한결같이 시시해 보였다. 말투도 그렇고, 행동거지도 거지 같았다. 시골 애들이었다. 아버지가 정미소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사장 집 애들과는 자주 놀았지만, 왠지 부자집 애들은 성격이 까탈스러워 시간이 지나면 자기 형제들끼리 다툼이 일어나서 놀이는 끝이나기 일수였다. 뭔가를 읽는 것은 온전히 내 맘대로라 책 속으로 빠져 들어가 노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열 살 때 아버지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시자, 가세는 급속도로 기울어서 거의 연명하다시피 하였다. 어머니는 생활 전선에 뛰어 드셨고, 애들은 어머니의 일을 도왔지만, 겨우 생활하는 수준이었다.

다행히 어머니가 친정 식구들에게는 맏누나 였기 때문에 외삼촌들이 두루 두루 우리 집을 거쳐가면서 출가하게 되었고, 덕분에 나는 일손을 많이 덜게 되었다.

중학생 즈음에는 외삼촌 한분이 기독교대백과 사전을 가져다 주셨다. 어디서 얻었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백과사전을 가지고 놀기 시작했다. 우연치고 대단한 우연인 셈이다. 고1 즈음에는 교회 장로님 댁 양계장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나 홀로 양계장을 지키는 역할이었다. 그곳에는 아버님 목사님 서재도 있었다. 마침 아버님 목사님께서 은퇴 이후 목포 공생원에서 근무 하셔서 나는 그 목사님의 서재에 몰래 들어가 모든 책들을 훔쳐보는 재미에 빠질 수 있었다. 그러다 나는 백과사전을 보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책의 개관을 정리해서 노트하게 되었다. 우연한 기회에 교회 고등부 부장집사님께서 내 노트를 보시더니 놀라시

면서 매 주일 1장씩 프린트 해서 학생들에게 나눠주면 좋겠다고 하셨다. 나는 졸지에 인쇄업자가 되었다.
나는 후일 면서기가 되겠다는 소망을 가진 친구가 학교 교실 앞 자리에 앉아 있어서 그 친구를 교회에 꼬셔다 놓고 그로 하여금 내 노트를 철필로 가리방에 옮겨 쓰게 하였다. 정말 책을 여러 권 출판하였다.

나는 중3 마지막 겨울방학부터 고1 개학 시기까지를 잊을 수 없다. 그 때 나는 홀로 추운 예배당에 날마다 가서 혼자 놀았다. 그 시기에 가장 많이 읽었던 성경이 요한복음이었는데, 왜냐면 당시 목포시 성경퀴즈 대회가 우리 교회에서 열렸는데, 요한복음서에서 문제가 출제 되었고, 내가 대표 선수로 출전했기 때문이다.
당시 내 마음에 가장 깊숙하게 자리한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이다.

봄이 되자 학생들이 한 두명 예배당에 모이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삽시간에 2-30여명이 모여 들었다. 고1때 나는 중등부 교사가 되었다.
나는 몹시 가난했으나, 가난이 나를 움츠러들게 하지는 않았다. 가난은 불편했겠지만, 당시에 나는 가난에 익숙한 나머지 무엇이 불편인지도 모르면서 살았다.
내겐 목포시를 맘껏 누빌 수 있는 자전거가 있었고, 아무도 나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사람이 없었고, 읽을 거리도 지천에 있었다. 중학생 때부터는 방과 후만 되면 어김없이 학교 도서관으로 가서 수천 권 소장 되어 있는 동서고금의 책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소위 모범생으로 알려져서 심지어 내가 지각해도 아무도 그런 것으로 나에게 왜 지각했느냐고 따지는 학생이나 선생님도 없었다.

오늘날 세상은 많이 변했다. 지난 50여년은 나에게는 파란의 세월이었지만, 우리나라에게는 격랑의 세월이었다. 나라 전체로서는 거센 물결에 맞서 싸웠지만, 나는 소소한 물결 속에서 비교적 평안한 삶을 살았다. 나의 문제는 주로 건강의 문제였고, 몇차례 나를 놀라게 하였지

만, 무사히 지나갔다.
아내는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었고, 희생해 주었고, 격려해 주었다.
자녀들은 한결같이 무탈하게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걸어 갔다. 작은 교회를 섬기느라 큰 꿈을 꿀 수 없어 여러 차례 그 꿈을 접고 현실적인 문제에 집중할 수 밖에 없었고 지금도 그것은 변함이 없지만, 뒤돌아 보면 모든 것이 감사요,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남아있는 교인들은 한결같이 충성스럽고 변함없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참석하고 있으니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복된 일이다.

여전히 크고 굵은 국제문제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나라가 버티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큰 은총을 베푸실 것을 믿는다.

하나님은 나를 비롯한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푸신 것을 믿는다. 일부 잘못된 신앙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들도 분명히 있지만, 대다수는 성실하고 신실하고 헌신적이며, 적극적이고, 겸손한 성품을 지니고 있다. 물론 다들 한가지씩은 단점도 있다.

요즘 전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중에 '복음의 전함'이라는 전도지 만드는 회사에서 '복음명함'을 만들어준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들은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회사를 만든 것이다. 참으로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명함 뒷면에 '들어볼까'라는 QR코드가 있는데 들어가 보면 유튜브로 여러 유명인의 간증을 시청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대신해 준 셈이다. 그러니 얼마나 고마운가.

대부분의 간증이 자신에게 결정적인 인생전환의 계기가 된 말씀이 어

떤 말씀인지에 대한 고백이 나온다. 그 말씀이 바로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고백이다. 그 말씀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고,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간증이다.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보살피신다. 나도 간증하라 치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간증이 있다. 잊어버리지 않은 은사가 있는 내 아내는 내가 잊어버렸던 많은 간증을 머리책속에 간직하고 있다가 옛날 이야기 하며 놀 때 하나씩 꺼내서 나를 놀래키곤 한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그런데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간증은 오늘 읽은 말씀과 관련이 있다.
내가 고1때 열심히 요한복음 공부 하는데, 가장 크게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다.
당시에 나는 성경대회에 나가서 창피 당할까봐 겁이 났다. 외워도 외워지지 않고, 말씀을 읽어도 뜻이 파악되지 않았다. 요한복음이 그렇다. 단어 자체는 너무 쉽지만, 나열된 단어들의 진정한 의미는 쉽게 도출되지 않는다. 요한 신학의 전체적인 틀이 없으면 말씀의 한 끄트머리 조차도 이해 되지 않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이다.
그런 나에게 이 말씀이 깊은 위로가 되었다. 당시 나는 아무거나 마구 먹어도 모두 믿어지는 시기였다. 심지어 이해되지 않아도 그냥 믿어졌다. 어떤 기적도 당연한 것이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하고 좋으신 일이었다.

오늘 말씀의 뜻은 이렇다.

너희가 곧 진리를 알게 될 터인데, 이 진리가 바로 너희들에게 자유

를 주게 될 것이다.

진리되신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해 하신 말씀이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도 제자들은 잘 알아듣지 못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자, 그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것들이 모두 깨달아졌다. 깨달아지자 담대해졌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인류의 답은 예수님께 있다. 그는 하나님 자신이시며, 구세주시다.

인생은 오답투성이다. 인생은 펑크난 타이어다. 모든 인생은 실패로 끝난다. 인생은 미완성이다. 인생은 치정극이다. 간혹가다 로멘스도 있고, 성공도 있고, 승리도 있지만 결국에는 한숨이요, 눈물이요 헤어짐이다.

그런 모순 투성이 인생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사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구원 그 자체시다.

사람은 눈을 감으면 바로 비틀거리고, 더듬거리고, 모든 능력이 최소로 축소되며 극소수의 정보만 전달될 뿐이다.

사람에게 구원이란 감긴 눈이 떠지는 것이다. 광명을 찾는 것이고, 진정한 세상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다. 해답을 발견하게 되고, 되도록 펑크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고, 아름다운 완성을 향해 길을 떠날 뿐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게 된다.

구원이란 이런 것이다. 무의미한 인생에게 가치와 의미를 부여해 준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된다. 영혼은 평안을 누리고 몸은 안식을 누리게 된다. 험한 세상에서 보호를 받으며, 모든 아픔에 위로를 받는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역사 이래로 가장 찬란한 나라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행복해하지 않는다. 젊은이들은 혼자 살고, 늙은이

들은 존경 받지 못한다. 출산율은 세계에서 제일 꼴찌이고, 정치인들은 놀랍게도 날마다 싸운다. 거짓말이 판을 치고 집 값은 천정부지, 다닥다닥 아파트를 최고의 투자로 여기며 가장 쾌적한 주거환경이라고 믿고, 교육열은 뜨거운 감자가 되었고, 휴일이 되면 해외로 빠져 나가느라 정신이 없다. 이혼율도 최고이고 이념 율법주의도 기세가 등등하다.

단언컨대 인생이란, 이런 게 아니다. 인생이 이렇게 세속적이라면 도데체 왜 살아가야 하는가? 좋은 집에서 살고, 맛있는 거 먹고, 화려한 드라마 보고, 여기 저기 여행 다니려고 그토록 아등 바등 사는가? (물론 그 자체가 악하거나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뜻은 아니다.) 그것이 목적도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은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점이다. 그러느라 정신 팔려서 구원을 놓친다면 당신은 화려한 궁전을 지어놓고 곁에 있는 오두막에 들어가 사는 것과 같다.

화려한 인생이 구원이 아니다. 화려한 인생에 구원이 없다면 그것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한 순간의 신기루, 곧 시들어버릴 장미에 불과하다.

반면에 보잘 것 없어보이는 들풀 같은 삶이라도 그 안에 구원이 깃들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이미 영생이 담겨 있으며, 향이나는 인생을 즐기고 있는 중이다.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신 예수님, 그것을 깨우치는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도록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 하시고 승천 하셨다.

오늘 말씀이 품고 있는 의미가 바로 그것이다.

구원의 진리를 모르면, 인생은 맹인이 되고, 구원의 진리를 깨달아 알면 인생은 영생을 품게 되어 세속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성경:**

Tag: